

# 가구특성과 소득계층 이동

최 바 울\*·김 성 환\*\*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환산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계층을 구분하고 Wave I(1998~2002)과 Wave II(2002~2006) 두 기간동안에 가구특성이 소득계층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저소득층과 설명변수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경우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경제활동상태, 가구내 취업자수, 가구내 취업자수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설명변수별 한계효과를 추정한 결과 Wave II에서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2002년 가구주 교육수준은 계층상승 가능성을 높였다.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경우 가구원 수와 가구내 취업자 수의 변화 역시 계층상승 가능성을 높였다.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Wave I 과 마찬가지로 2002년 가구내 취업자 수가 계층상승에 다른 변수들보다 훨씬 더 높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Wave I 과 II를 비교해 보면, 공통적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가구내 취업자 수가 다른 변수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과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경우 Wave I 에서 Wave II와는 달리 거주지와 가구주 성별이 계층상승에 영향력을 보였다. 즉, 소득계층 향상을 위해 가구내 취업자 수 및 교육수준의 향상이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소득계층 상승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교육·직업훈련 지원 등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1. 들어가는 글

1997년 경제위기 직후 크게 악화되었던 한국의 소득분배는 최근까지도 그 이전의 수준으로 완화되지 않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주로 경제위기가 특히 노동시장에 미친 충격효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크게 악화된 바 크지만, 소득분배의 중장기적 악화추세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실제로 다른 OECD 국가들도 지난 1980년대 이후 소득분배가 악화되어 소득불평등 및 빈곤이 다시 사회경제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소득 격차의 확대는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파급효과를 내포하게 된다. 급격한 소득 감소는 가구의 생계유지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교육 등과 같은 기본적인 지출을 감소시켜 향후 생산성이 높은 노동력을 배출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지출의 확대는

---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 수료

\*\*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

필연적이어서 재정적자를 누적시키게 되고, 소득이 양극화됨에 따라 소득계층간의 불신을 낳게 하며,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여 사회통합을 어렵게 만든다.

경제위기 이후 최근까지 한국에서도 소득불평등 및 빈곤이 주요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부각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지만,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아직도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1)</sup>.

그런데 이들 소득불평등 및 빈곤에 대한 연구들은 전체적인 추세 및 격차발생의 원인, 여성, 고령층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물론 전체적인 추세나 특정 계층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전체적인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를 보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계층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정작 이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들 연구를 통해 첫째, 소득수준 위주의 정부정책을 가구특성별로 세분화할 수 있는 보다 미시적인 지원정책의 수립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동일한 소득수준의 가구들도 그 특성에 따라 소득감소폭이 다를 수 있는데, 가구특성과 소득계층 변화를 연계시킴으로써 이러한 특성에 적절한 정책수립이 가능하다. 둘째, 다양한 가구특성 중 어떠한 특성이 소득계층의 변화(특히 소득상승계층의 경우)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정책방안을 만들 수 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유경준·김대일, 2002; 김진욱·정의철, 2004).

이와 관련된 연구로 박순일 외(2000)는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계층별로 구분하여 근로자가구는 소득을 기준으로, 비근로자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는 지출을 중심으로 계층내 위치 및 이동의 원인과 기간을 분석하였다. 유경준·김대일(2002)은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 분포의 변화분석을 통해 중하위층과 상위층의 상대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정진호 외(2001), 황덕순(2001) 등은 도시가계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패널을 구축하여 빈곤 탈출과 진입, 그리고 빈곤 기간 등에 대한 동태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이들 연구들은 비록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가지고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하였으나, 엄밀한 의미의 패널자료가 아니고 원자료인 도시가계자료의 특성상 1인 가구가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상태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소득 대신 소비지출 자료를 이용하거나 소득자료를 분석한 경우에도 근로자가구만을 분석함으로써 전체 가구의 계층이동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편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계층의 특성을 분석한 논문으로는 주로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한 저소득계층의 빈곤의 진입과 탈출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sup>2)</sup>,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2000년 이후 빈곤 탈출률은 감소하고 빈곤이 고착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특히, 가구주가 여성이거나 한부모가정일 경우, 저학력일수록, 비정규직·고령층에 속할수록 그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남준우(2007), 유경준(2008) 등은 한국노동패널과 도시가계조사 등을 이용하여 중산층의 규모와 소득

---

1) 이에 관한 연구들로는 문형표·이정우·이성림(2001), 정진호·최강식(2001), 황덕순(2001), 정진호 외(2002), 금재호(2003) 등이 있다.

2) 이에 관한 연구들로는 홍경준(2004), 구인회(2005), 석상훈(2007), 조용수·김기승(2007), 성명재(2007) 등이 있다.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는데, 중산층에서 이탈한 계층은 저소득층으로 더 많이 이동하였음을 밝혔다.

한편, 김진욱·박창원(2001), 김진욱·정의철(2004) 등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을 구분하고, 가구특성에 따라 어느 소득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다항로짓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는 특정 시점에서의 가구특성과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분석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가구특성이 소득계층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노동패널 자료(KLIPS)를 이용하여 어떠한 가구특성이 소득계층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대표적인 소득분배 지표인 소득 불평등의 추이와 확대요인을 분석하며, 중산층 규모의 변화도 함께 살펴본다. 3장에서는 가구동등화지수를 활용하여 가구별 소득을 파악하고, 소득계층을 구분하여 각 소득계층의 가구특성별 실태를 분석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순위로짓 모형을 설정하고 추정 결과를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한다.

## II. 소득분배 추이

### 1. 기초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KLIPS) 1-10차년도<sup>3)</sup> 개인 및 가구 자료이다<sup>4)</sup>. 표본가구의 기초통계는 <표 1>에 요약하였다. 2006년(10차년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구 평균 취업자수는 1.28명이며, 가구원수는 평균 3.07명이다. 가구주 중 남성이 약 81%이며,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이상이 35%로 가장 많았다. 가구주 평균 연령은 51.2세, 연령대로는 60대 이상이 가장 많았으나 40-50대도 20%대를 넘었다. 직종별로는 임금근로자가 약 47%, 비임금근로자가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실업자의 비중은 외환위기 직후 6.8%에서 1.8%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실업률 자체의 감소효과보다는 실망실업자를 포함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효과(18.0%→26.0%)가 컸기 때문이다.

실질가구소득을 살펴보면, 연평균 환산소득의 경우 1997년 1,348만원에서 2006년 2,025만원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소득의 증가는 경제위기 와중에도 상위계층의 소득증가 폭이 하위계층의 소득감소 폭보다 상대적으로 더 컸음을 의미하며, 소득분배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근로소득은 1997년 1,144만원, 2001년 1,363만원, 2006년 1,596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소득의 비중

---

3) 한국노동패널의 시작연도는 1998년부터이지만, 설문조사시 이전 년도의 총소득을 질문하였으므로, 분석의 시작연도를 1997년으로 두고 분석하였다.

4) 기초통계 및 지니계수 추정시에는 3장 이후의 분석에서 사용한 패널 구축자료가 아닌 횡단면 자료(당해년도 신규분가가구 제외)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패널자료의 경우 소득 및 불평등도를 과대 혹은 과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 85%(1997)에서 83%(2001), 79%(2006)로 점차 낮아졌다. 이는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기업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 등으로 근로소득의 증가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된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근로소득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근로소득의 비중이 감소한 것은 상대적으로 비근로소득의 증가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소득의 급증은 소득의 특성상 고소득층에 의해 집중되었을 확률이 높고, 따라서 이러한 자산소득이 소득분배악화의 주요 원인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기타소득의 증가는 경제위기로 인해 기업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이 증가하면서 명예 및 조기 퇴직에 따른 일시적인 퇴직금이 증대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중상류층 소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2000년 이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표 1> 표본가구의 기초통계량

(단위 : 가구, 명, %, 만원)

		1997(1차)	1998(2차)	2001(5차)	2006(10차)	
전체표본수		4,709	4,228	4,035	4,834	
취업자수		1.31	1.40	1.42	1.28	
가구원수		3.51	3.54	3.42	3.07	
평균연령		46.8	47.89	49.60	51.20	
가구주 특성	성별	남성	85.99	86.21	85.86	80.95
		여성	14.01	13.79	14.14	19.05
	학력별	중졸이하	38.32	38.74	38.21	32.19
		고졸	36.62	35.91	34.70	32.61
		전문대졸	25.06	25.35	27.09	35.20
	취업 형태	임금	46.24	46.27	48.39	47.27
		비임금	29.01	30.09	28.33	24.93
		실업자	6.79	3.69	1.37	1.80
		비경활	17.95	19.95	21.9	26.00
	연령별	29세이하	6.42	3.94	3.09	3.50
		30-39세	26.90	26.31	21.83	19.77
		40-49세	28.19	28.89	29.50	25.53
		50-59세	19.98	20.43	21.00	23.26
		60세이상	18.50	20.43	24.57	27.94
	종사상 지위	상용직	50.85	47.22	49.66	52.17
		임시직	3.97	5.42	4.41	4.53
		일용직	6.62	8.03	9.00	8.83
		자영업	38.56	39.32	36.93	34.47
	거주지	특별·광역시	43.59	43.99	44.62	47.47
		시도	56.41	56.01	55.38	52.53

<표 1> 표본가구의 기초통계량 - 계속

(단위 : 가구, 명, %, 만원)

			1997(1차)		1998(2차)		2001(5차)		2006(10차)	
실질 가구 소득	평균 소득	가구소득	2,498.6	-	2,355.9	-	3,054.1	-	3,563.3	-
		환산소득	1,348.0	100.0	1,255.6	100.0	1,634.6	100.0	2,025.0	100.0
		근로소득	1,143.9	84.9	1,038.1	82.7	1,363.0	83.4	1,596.1	78.8
		금융소득	34.1	2.5	28.2	2.3	29.4	1.8	34.0	1.7
		부동산소득	27.8	2.1	52.9	4.2	110.8	6.8	156.5	7.7
		이전소득	39.6	2.9	16.2	1.3	37.0	2.3	59.2	2.9
		사회보험소득	36.1	2.7	42.5	3.4	58.6	3.6	114.1	5.6
		기타소득	66.6	4.9	77.7	6.2	35.9	2.2	65.2	3.2
관측치수			4709		4228		4035		4834	

주 : 1) 환산소득은 가구 내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가구소득에 동등화지수(=0.5)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음(환산소득=가구소득/가구원수\*0.5)

2) 종사상지위에서 자영업에는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된 수치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KLIPS) 1-10차년도.

## 2. 소득분배의 추이 : 지니계수, 10분위 분배율, 중산층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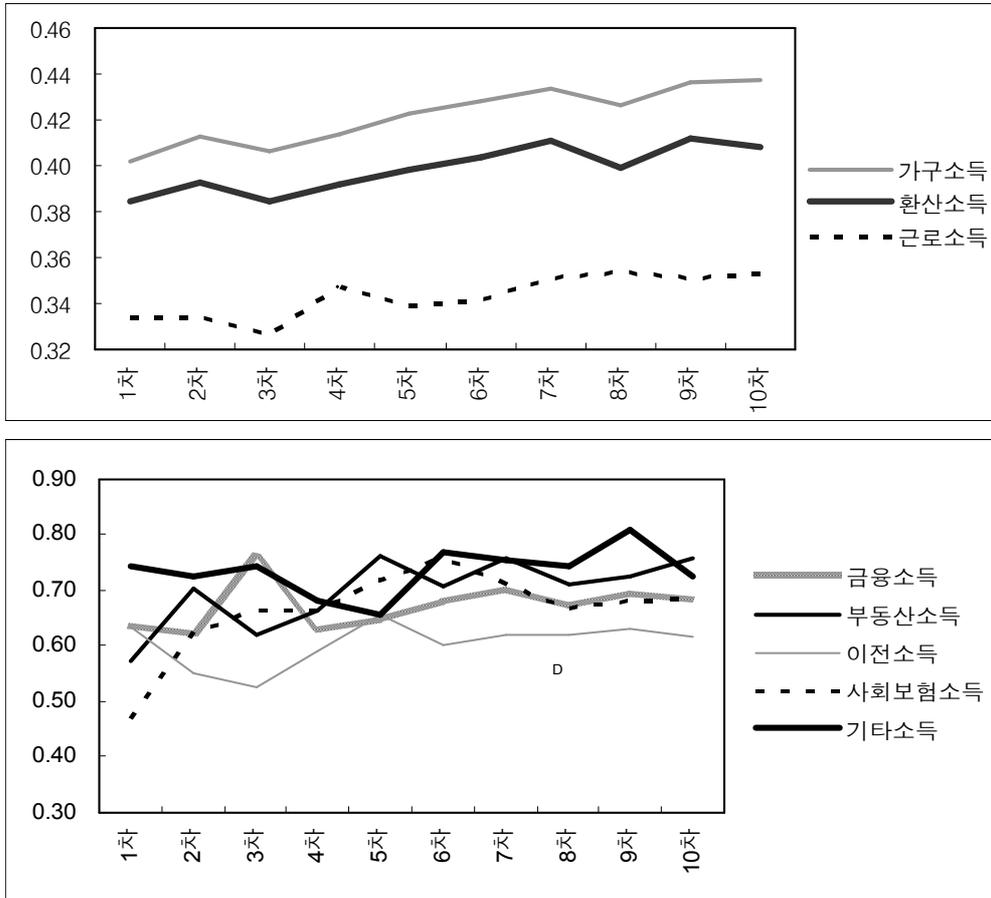
소득분배의 보다 명확한 추이를 보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경제위기 이후 지니계수는 계속 상승하여 2006년 현재 0.438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도시경제연보』를 이용한 기존의 연구들이 대개 0.3~0.4 내외의 수치를 보이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인데, 그 이유로는 소득분배가 보다 더 불평등한 자영업자 가구와 1인 단독가구가 표본에 포함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지니계수의 추이를 보면, 부분적인 개선이 있었지만 1997년 이후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1997년 0.391에서 2001년 0.415로 증가하였으며, 환산소득 역시 이와 동일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 1998~1999년 일부 개선되었으나 2000년 이후 다시 악화되었다.

한편,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이후 지니계수가 0.6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 소득의 특성상 과소보고 되거나 최상위계층의 경우 아예 누락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실제 불평등은 이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다.<sup>5)</sup>

5) 각 소득항목별 지니계수에서 소득이 '0'이거나 결측치인 가구는 제외한 후 계산한 것이다.

[그림 1] 소득항목별 지니계수



이처럼 소득분배가 부분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제위기 이후보다 지니계수가 더 증가한 것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생산적 복지를 통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등 불안정한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소득분배의 경우 경제적인 회복이 바로 그 해의 소득분배와 연결된다고 보기는 힘들고 분배개선에는 어느 정도의 시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경기 회복의 이득이 어떤 계층에게 더 많이 분배되느냐에 따라 소득불평등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짧은 기간만으로 쉽게 정책의 효과나 경제활성화를 통한 성과의 분배를 논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적어도 부동산소득과 같은 자산소득으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sup>6)</sup>.

6) 2003년 부동산 안정화 정책(10.29 대책)의 시행 등 자산소득의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표 2> 가구주 특성별 지니계수(환산소득 기준)

		1997(1차)	1998(2차)	2001(5차)	2006(10차)	
가구주 특성	성별	남성	0.371	0.379	0.379	0.390
		여성	0.447	0.458	0.478	0.450
	학력별	중졸이하	0.386	0.402	0.445	0.447
		고졸	0.324	0.331	0.334	0.335
		전문대졸이상	0.358	0.367	0.333	0.361
	직종별	임금	0.290	0.337	0.321	0.332
		비임금	0.376	0.386	0.393	0.405
		실업자	0.545	0.492	0.342	0.415
		비경활	0.539	0.494	0.542	0.508
	연령별	29세이하	0.314	0.274	0.285	0.294
		30-39세	0.321	0.328	0.327	0.325
		40-49세	0.363	0.395	0.345	0.357
		50-59세	0.380	0.389	0.364	0.400
		60세이상	0.510	0.465	0.540	0.500
	거주지	특별·광역시	0.381	0.405	0.409	0.413
		시·도	0.386	0.384	0.388	0.402

다음으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주 특성별 지니계수를 살펴보았다. 우선 가구주의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녀가구 모두 동일하게 경제위기 이후인 1998년부터 소득불평등의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여성 가구주간의 불평등이 남성 가구주에 비해 더 크며, 위기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악화 또한 여성 가구주 가구가 남성 가구주 가구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동일 학력내 소득 불평등도는 중졸이하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대졸이상 순이다. 모든 학력 내 지니계수는 1997년보다 2006년이 더 커져 학력 내 소득불균등이 심화됨을 알 수 있다.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 1998년 이후 다른 계층과 마찬가지로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었지만 경기가 회복되고 기업들이 경력자 위주의 고학력자를 선호하는 채용관행 등으로 일시적으로나마 개선되었으나 이후 다시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이전까지는 전문대 이상의 졸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고 임금격차가 비교적 적었지만, 계속되는 불황으로 인해 취업의 눈높이를 낮추는 이른바 직업의 ‘하향지원’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직종별로는 비임금 근로자내 지니계수가 임금근로자보다 약 0.07p 이상 더 높으며,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내 모두의 지니계수는 증가하였다. 이는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특히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소득불평등도 악화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비임금 근로자중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비중 증가와 경제위기과정에서 급증했던 영세자영업자들의 소득감소가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지니계수가 약 0.50으로 가장 높았으며, 29세이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50대 이상과 29세 이하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보다 2006년에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였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견고한 30~40대의 경우는 1997년보다 2006년에 소득 불평등이 축소되었다.

다음으로 <표 3>의 분위별 소득점유율을 보면, 유일하게 상위20% 이상인 계층의 소득 몫은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중간계층(중위60%)의 소득 몫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소득 몫이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소득으로 양분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정우·이성림, 2001; 최희갑, 2002). 이는 하위 40%의 소득을 상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10분위 분배율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경제위기 이후 10분위 분배율 값이 계속 하락하였는데, 이는 상위 계층의 소득증가(특히 부동산·금융소득)로 최상위 계층 몫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3〉 소득항목별 10분위분배율

	가구소득				환산소득			
	1997	1998	2001	2006	1997	1998	2001	2006
1분위	1.36	1.17	1.05	1.18	1.73	1.52	1.43	1.63
2분위	3.19	3.10	2.89	2.68	3.59	3.50	3.39	3.19
3분위	4.79	4.65	4.50	4.10	5.06	5.01	4.91	4.67
4분위	6.18	6.06	6.07	5.70	6.29	6.18	6.25	6.00
5분위	7.40	7.33	7.28	7.02	7.64	7.56	7.55	7.31
6분위	9.07	8.93	8.77	8.58	8.91	8.87	8.87	8.65
7분위	10.41	10.33	10.49	10.25	10.47	10.43	10.46	10.26
8분위	12.52	12.48	12.45	12.62	12.25	12.29	12.35	12.42
9분위	15.83	15.94	15.6	16.24	15.32	15.52	15.16	15.76
10분위	29.24	30.02	30.9	31.63	28.74	29.12	29.63	30.10
하위40/상위20	0.34	0.33	0.31	0.29	0.38	0.36	0.36	0.34
상위10/하위10	21.44	25.68	29.35	26.73	16.62	19.11	20.72	18.46
상위20/하위20	9.91	10.76	11.79	12.4	8.28	8.88	9.3	9.51
하위20%소득점유율	4.55	4.27	3.94	3.86	5.32	5.02	4.82	4.82
중위60%소득점유율	50.37	49.78	49.56	48.27	50.62	50.34	50.39	49.31
상위20%소득점유율	45.07	45.96	46.5	47.87	44.06	44.64	44.79	45.86

이러한 해석은 중산층 규모의 변화를 보면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빈곤층이 급증한 것은 중산층에 속했던 가구들이 경제위기의 충격으로 빈곤선 아래 혹은 근처로 떨어졌기 때문에 중위계층의 규모에 대한 추이를 분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주요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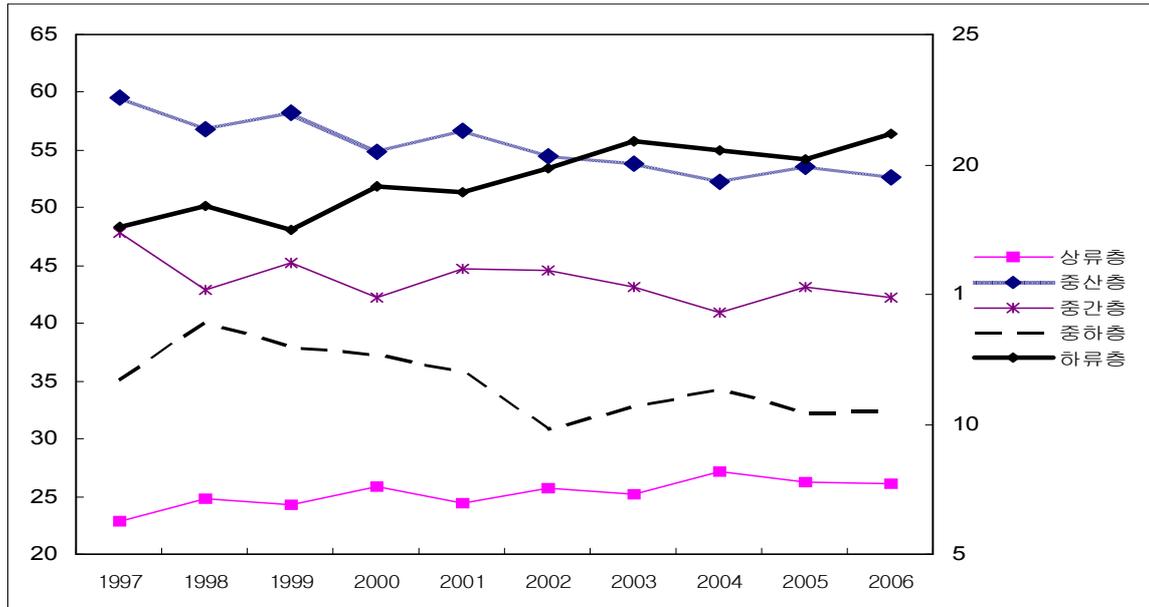
중산층은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일정 % 이내의 소득을 가진 가구를 중산층으로 하여 크게 4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OECD(1995) 기준에 따라 중간값(median)의 150% 이상을 상위층, 50~150% 계층을 중산층, 50% 이하를 빈곤층으로 분류하였다. 중산층은 다시 50~70%

7) 소득분배의 불평등에 관한 연구는 많으나 중산층 붕괴로 대표되는 소득분배의 양극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미국의 경우 Thurow(1984), Blackburn and Bloom(1985)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한국의 경우 경제위기 이후 각종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자주 제기되고 있다. 소득분배의 양극화에 대한 개념과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Esteban and Ray(1991, 1994), Foster and Wolfson(1992), 최희갑(2002), 유경준(2008)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계층을 중하층, 70~150% 계층을 중간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그림 2> 참고).

이렇게 구해진 중산층의 규모는 다소 변동이 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직후 57% 내외에서 2006년 54%로 감소한 반면, 하류층은 18%내외에서 20%로, 상류층은 24%내외에서 26%로 늘어 '상·하류층의 증가-중산층의 감소(특히 중간층)'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소득의 하향평준화로 해석할 수 있다(이정우·이성림, 2001; 최희갑, 2002).

[그림 2] 중산층 규모(전체, 환산소득)



### III. 소득계층별 실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노동패널 1~10차년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어떠한 가구특성이 소득계층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10개년 연속자료를 이용하여 첫째, 가구동등화지수(equivalence scale)를 이용한 환산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계층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구분한 다음, 둘째, Wave I (1998~2002)과 Wave II (2002~2006) 기간동안 계층상승군, 계층하락군, 그리고 변화가 없는 계층유지군으로 구분하고, 각 군별 실태를 거주지역, 취업자수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셋째, 순위 로짓(Ordered Logit)모형을 이용하여 가구특성 및 가구특성의 변화가 소득계층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다.

본 장에서 사용한 한국노동패널은 첫 해인 1998년 5,000가구를 조사하고 있으나 이 중 본 연구에서 대상이 된 가구는 2,221가구이다. 이는 1차년도부터 10차년도까지 한번이라도 응답하지 않은 가구와 신규 분가가구, 소득에 대하여 대답을 하지 않거나 모른다고 대답한 가구, 비교연도에 가구주의 인적속성 및 경제활동상태 등이 알려져 있지 않은 가구를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표 4>, <표 5>는 위에서 설명한 소득계층 분류의 기준에 기초하여 2,221가구에 대하여 각 기간동안 소득계층별 가구수를 구분한 결과이다. Wave I 과 WaveII에서 공통적으로 중산층이 줄고, 상류층과 저소득층이 증가하는 가운데, 저소득층에서 중산층 이상으로 계층이 상승한 계층과 중산층에서 고소득층으로 변한 계층(상승계층)은 18.7%와 18.0%, 계속해서 저소득층, 중산층 혹은 고소득층에 속한 계층, 즉 계층 변화가 없는 계층(유지계층)은 60.8%와 62.6%,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하락한 계층 혹은 고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하락한 계층(하락계층)은 20.5%와 19.5%였다.

<표 4> 소득계층 분류에 따른 가구 비중(1) : Wave I (1998 ~ 2002)

1997 \ 2001	상류층	중산층	저소득층	총가구수(→)
상류층	12.59	10.45	0.93	23.97
중산층	11.1	39.31	9.13	59.54
저소득층	0.68	6.95	8.85	16.48
총가구수(↓)	24.37	56.71	18.91	100

<표 5> 소득계층 분류에 따른 가구 비중(2) : Wave II (2002 ~ 2006)

2001 \ 2006	상류층	중산층	저소득층	총가구수(→)
상류층	14.18	9.52	1.61	25.31
중산층	11.22	37.12	8.33	56.67
저소득층	0.69	6.05	11.28	18.02
총가구수(↓)	26.09	52.69	21.22	100

## 1. 가구특성에 의한 소득계층별 실태

<표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Wave I 과 WaveII 공통으로 계층이 상승한 가구는 취업인원이 2인 이상인 경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수가 2인인 가구 중 계층이 상승한 가구는 44.00%/39.86%로 전체 평균 30.35%/34.19%보다 컸으며, 3인이 취업한 가구의 경우에는 11.69%/12.08%로 전체 평균 7.33%/6.95%보다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인 이상이 취업한 가구는 전체 평균(2.27%/1.93%)보다 큰 3.47%/3.83%에 달하였다. 한편 하락한 계층의 경우에는 취업자가 없거나 1인 가구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업자 수가 증가할수록 계층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추측된다.

거주지역의 경우 Wave I 에서는 광역시 거주 가구에 비하여 시도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중 계층이 상승한 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WaveII에서는 그 반대였다. 유지 및 하락계층은 전체 평균과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였는데, 다만 광역시 거주 가구는 Wave I 과 WaveII 모두에서 하락계층이 47.45%/46.64%로 전체 평균 46.12%/46.1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에서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계층이 상승한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sup>8)</sup>. 4인 가구와

8) 가구원수와 취업자수 간의 상관계수는 0.46-0.51로 그리 높지 않아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소득계층이 상

5인 가구의 경우 Wave I 과 WaveII에서 모두 상승계층이 많아서 각기 47.97%/39.05%와 14.19%/11.30%에 달하였다. 한편 하락계층은 Wave I에서는 4인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전체평균보다 높은 반면 WaveII는 2인 가구와 3인 가구가 전체 평균(각기 17.70%, 19.16%)보다 높은 22%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6> 가구특성별 소득계층 변화 I

		1998→2002(기준년도)				2002→2006(기준년도)			
		상승	유지	하락	전체	상승	유지	하락	전체
취업자수	0	4.33	12.11	21.42	12.56	12.25	17.49	23.99	17.81
	1	36.49	39.91	39.89	39.27	31.98	39.84	43.43	39.12
	2	44.00	37.62	30.35	37.33	39.86	34.54	27.82	34.19
	3	11.69	8.03	7.33	8.58	12.08	6.44	3.84	6.95
	4 이상	3.47	2.33	0.99	2.27	3.83	1.70	0.92	1.93
거주지역	광역시	44.25	46.24	47.45	46.12	47.00	45.78	46.64	46.17
	사·도	55.75	53.76	52.55	53.88	53.00	54.22	53.36	53.83
가구원수	1	5.10	8.34	9.70	8.01	9.44	11.46	9.87	10.78
	2	9.47	13.4	23.18	14.67	16.64	16.55	22.38	17.70
	3	17.77	16.35	22.15	17.81	21.37	18.10	22.82	19.61
	4	47.97	45.34	27.84	42.24	39.05	41.45	33.69	39.51
	5	14.19	13.35	12.72	13.38	11.30	10.15	9.30	10.19
	6 이상	5.50	3.21	4.41	3.89	2.21	2.29	1.95	2.20

## 2. 가구주 특성에 의한 소득계층별 실태

<표 7>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기준으로 보면 Wave I 과 WaveII에서 모두 상승계층은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이거나 자영업인 경우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은 가구주 연령은 40대와 50대였다. 유지계층은 30대 비율이 평균보다 높았으며, 하락한 계층은 60대 이상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계층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상승계층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가구주 가구가 26.34% & 28.73%로 평균 23.71% & 26.83%보다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을 유지한 경우에는 Wave I 과 WaveII에서 모두 고졸 이상의 학력 소유한 계층이 평균보다 크게 나타났고, 하락계층은 중졸 이하의 학력을 소유한 계층이 평균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학력이 낮을수록 하락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승하는 이유는 불명확하다. 다만 동등화된 가구소득을 계산할 때 가구원수의 제공근을 분모로 이용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추측된다. 따라서 향후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가구원수가 소득계층 변화에 미치는 효과 해석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김진욱·정의철, 200).

가구주의 성별 소득계층 변화는 Wave I에서는 여성 가구주 가구가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 모두 평균 12.90%보다 높았으며, Wave II에서는 상승한 경우는 여성 가구주 가구가, 하락한 경우는 남성 가구주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가구특성별 소득계층 변화 II

		1998 → 2002(기준년도)				2002 → 2006(기준년도)			
		상승	유지	하락	전체	상승	유지	하락	전체
경제 활동	임금근로자	50.58	49.26	36.39	46.86	45.72	44.27	30.88	41.92
	자영자	34.99	29.64	29.49	30.61	28.14	26.88	31.42	27.99
	실업자	0.23	0.86	1.85	0.95	1.04	1.53	2.68	1.66
	비경활	14.19	20.24	32.27	21.58	25.1	27.33	35.02	28.42
연령	29 이하	0.47	0.73	0.11	0.55	0.19	0.21	0.68	0.3
	30-39	16	20.26	13.97	18.17	5.68	7.24	7.25	6.96
	40-49	34.74	30.1	23.2	29.55	27.9	30.83	23.35	28.85
	50-59	27.09	22.69	23.88	23.76	33.45	28.39	24.85	28.61
교육	60 이상	21.7	26.23	38.83	27.97	32.78	33.33	43.86	35.28
	중졸이하	39.84	40.37	47.15	41.66	38.36	39.14	41.28	39.41
	고졸	33.82	35.62	32.42	34.63	32.91	33.91	34.06	33.76
성	전문대졸이상	26.34	24.01	20.42	23.71	28.73	26.96	24.66	26.83
	남성	86.82	88.3	83.82	87.1	81.61	84.66	86.74	84.51
	여성	13.18	11.7	16.18	12.9	18.39	15.34	13.26	15.49

#### IV. 실증분석 결과<sup>9)</sup>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가구의 특성에 따른 소득계층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모형의 추정은 순위 로짓모형을 이용하였는데<sup>10)</sup>, 가구 소득계층 변화를 어떠한 수준으로 고려하는가에 따라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모형 1은 소득계층의 변화를 계층하락, 계층유지, 계층상승 등 세 단계로 고려한 것으로서<sup>11)</sup>, 이 경우 종속변수는 0, 1, 2의 값을 갖게 된다. 모형 2는 소득계층의 변화를 변화의 정도에 따라 다섯 단계로 세분한 형태로서<sup>12)</sup> 매우하락은 ‘고소득층→저소득층’으로 변

9) 이하의 내용은 특히 김진욱·정의철(2004)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10) 순위 로짓모형과 한계효과 추정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생략하였으며, 순위 프로빗모형의 추정결과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 하락계층에는 ‘고소득층→중산층 또는 저소득층’, ‘중산층→저소득층’, ‘고소득층→중산층 또는 저소득층’, ‘중산층→저소득층’으로 변화된 계층을 포함하며, 상승계층은 ‘저소득층→중산층 또는 고소득층’, ‘중산층→고소득층’, ‘저소득층→중산층 또는 고소득층’, ‘중산층→고소득층’으로 변화된 계층을 포함할 것이다. 각 소득계층에서 다른 소득계층으로 변화가 없는 계층은 유지계층이 될 것이다.

12)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이동한 계층보다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계층의 경우 소득계층

화한 가구를 포함하며, 하락은 '고소득층→중산층' 또는 '중산층→저소득층'으로 변화한 가구, 유지 계층은 계층의 변화가 없는 가구, 상승은 '저소득층→중산층' 또는 '중산층→고소득층'으로 변화한 가구, 그리고 매우상승은 '저소득층→고소득층'으로 변화한 가구를 포함한다. 이 경우 종속변수는 0, 1, 2, 3, 4의 값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때 소득계층의 변화요인을 설명하는 변수들은 여기에서는 가구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별 특성변수를 거주지역, 가구주 성, 경제활동상태(자영자실업자비경황), 가구원 수,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내 취업자 수 등을 독립변수로 이용하였다. 거주지역의 경우 특별시·광역시에 거주하는 가구는 0, 시도 거주 가구는 1의 값을 부여하였다<sup>13)</sup>. 가구주의 성은 남성의 경우 1, 여성의 경우 0의 값을 갖는다.

한편 가구특성의 초기 상태에 따라 소득계층의 변화가 다를 것이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들의 경우 각 Wave의 최초 년도의 변수 값을 설명변수에 추가적으로 포함시켰다. 가구주 교육수준은 미취학에서 대학원 박사까지 1~9의 값을 가지며, 교육수준의 변화는 각 Wave의 최초 년도와 마지막 년도사이의 차이를 의미한다. 가구내 취업자 수는 가구내 각 가구원의 취업상태를 파악하여 취업중인 가구원의 합으로 계산하고, 가구내 취업자수의 변화는 교육수준과 마찬가지로 각 Wave의 최초 년도와 마지막 년도사이의 차이 계산하였다. 가구주 연령은 각 Wave의 최초 년도의 가구주 연령에 기초하여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등 연령별 더미변수의 형태로 설명변수에 포함시켰으며, 40대가 기준 더미이다<sup>14)</sup>.

한편 각 모형에서는 저소득층과 중산층·고소득층의 가구특성이 소득계층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기 위하여 각 설명변수의 각 Wave에 최초 년도의 저소득층 더미 교차항을 추가하였다. 이 때 저소득층 더미가 포함된 변수의 추정계수는 계층 상승에 있어서 중산층 및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표 8>은 모형 1의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모형 1A의 추정 결과를 보면, Wave I에서는 1998년의 경제활동(실업자), 가구주 연령(30대이하), 가구원 수,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내 취업자 수의

---

의 변화 정도가 더 높을 것이며, 반대로 고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이동한 계층보다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동한 계층이 그 변화 정도가 더 높을 것이다. 소득계층은 가장 하락한 계층(고소득층→저소득층), 하락한 계층(고소득층→중산층, 중산층→저소득층), 유지계층, 상승한 계층(저소득층→중산층, 중산층→고소득층), 가장 상승한 계층(저소득층→고소득층)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하락에서 상승의 정도에 따라 순위를 표현할 수 있다.

13) 거주지역은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나 이러한 거주지역의 변화가 소득계층의 변화에 따른 것인지, 반대로 거주지역의 변화로 인한 소득계층의 변화인지 그 인과관계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일단 생략하였다.

14) 가구원수가 소득계층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계층의 변화 추정 모형에 가구원 수와 가구원 수의 변화를 설명변수로 포함시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소득계층의 분류 기준인 환산소득이 가구원수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가구원 수와 관련된 변수를 추정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그 영향이 다른 변수의 추정계수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변수들을 일단 모형에 포함시켰다.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변수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추정계수의 부호가 음(-)의 변수인 1998년 경제활동(실업자)은 계층하락에 양(+)의 영향을 줄 것이며, 추정계수의 부호가 양(+)인 변수인 가구주 연령(30대이하), 가구원 수, 가구주 교육수준, 1998년 가구내 취업자 수의 변화는 계층상승에 양(+)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구원 수도 계층상승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가구특성으로서의 가구원 수가 계층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가구원 수를 반영하는 가구환산소득 계산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김진욱정의철, 2004)

Wave II에는 2002년의 경제활동(자영업·실업자·비경활),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50대), 가구원 수의 변화,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내 취업자 수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변수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추정계수의 부호가 음(-)인 변수인 2002년의 경제활동(자영업·실업자·비경활),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50대), 가구원 수의 변화는 계층하락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Wave I 과 Wave II를 비교해 보면, 가구내 취업자 수의 변화가 공통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면, 1998년 경제활동(실업자)→2002년 경제활동(자영업·실업자·비경활), 1998년 가구주 연령(30대이하)→2002년 가구주 연령(50대)으로 변화했다. Wave I에서는 1998년 가구원 수, 가구주 교육수준의 변화, WaveII에서는 2002년 가구주의 성별, 가구원 수의 변화, 가구주 교육수준이 해당 기간 동안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모형 1B의 추정 결과를 보면, Wave I에서는 경제활동(자영자·실업자·비경활), 1998년 거주지, 1998년 가구주 연령(60대이상), 1998년 가구원 수, 1998년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내 취업자 수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성은 1998년 저소득층 더미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1998년 거주 지역은 1998년 저소득층 더미를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5%에서 유의하였으나 1998년 저소득층 더미를 포함한 경우 유의하지 않았다. 즉, 1998년 사도에 거주하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계층 상승에 음(-)의 영향을 주나 저소득층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98년 가구주 교육수준, 그리고 1998년 가구내 취업자 수 및 취업자 수의 변화는 1998년 저소득층 더미를 포함시킬 때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Wave II에서는 경제활동(자영자·실업자·비경활), 2002년 가구주 연령(50대·60대이상), 2002년 가구원 수와 가구원 수의 변화,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내 취업자 수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경제활동(자영자·실업자·비경활), 가구주 연령(60대이상),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내 취업자 수는 2002년 저소득층 더미를 포함시킬 때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명변수들의 추정계수가 모두 양(+)으로 나타난 것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순위 로짓모형의 특성상 저소득층의 경우 중산층 및 고소득층에 비하여 소득계층 상승의 기회가 더 많다는 점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Wave I 과 Wave II를 비교해 보면, Wave II에서 가구원 수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이 거의 동일하였다.

<표 8> 순위 로짓모형 추정 결과 I : 모형 1

1) WAVE 1 (1998-2002년)

	모형1A		모형1B	
	계수	표준편차	계수	표준편차
자영자	0.0951	0.1094	-0.0413	0.123
실업자	-0.3172 <sup>†</sup>	0.2096	-1.092 <sup>***</sup>	0.25
비경활	-0.1004	0.1616	-0.3802 <sup>**</sup>	0.194
1998년 거주지(도=1)	0.0607	0.0898	0.19997 <sup>**</sup>	0.104
가구주 성별(남=1)	-0.0863	0.1500	0.1792	0.194
1998년가구주30대이하	0.21155 <sup>†</sup>	0.1471	0.1847	0.164
1998년가구주50대	0.0146	0.1377	-0.0634	0.155
1998년가구주60대이상	-0.0510	0.1526	-0.5953 <sup>***</sup>	0.178
1998년가구원수	0.1315 <sup>***</sup>	0.0480	0.1234 <sup>**</sup>	0.056
가구원수의 변화	0.0562	0.0630	0.0164	0.073
1998년가구주 교육수준	0.0168	0.0358	0.1272 <sup>***</sup>	0.04
가구주 교육수준의 변화	0.1526 <sup>†</sup>	0.1022	0.1493	0.116
1998년가구내 취업자 수	-0.0132	0.0820	0.0872	0.093
가구내 취업자 수의 변화	0.4638 <sup>***</sup>	0.0651	0.4910 <sup>***</sup>	0.075
1998년 가구주 자영자×1998년 저소득층	-	-	-0.7193 <sup>*</sup>	0.384
1998년 가구주 실업자×1998년 저소득층	-	-	1.1239 <sup>**</sup>	0.533
1998년 가구주 비경활×1998년 저소득층	-	-	0.7923 <sup>**</sup>	0.393
1998년 거주지(도=1)×1998년 저소득층	-	-	-0.2372	0.261
가구주 성별(남=1)×1998년 저소득층	-	-	-0.0675	0.336
1998년 가구주 40대×1998년 저소득층	-	-	0.2025	0.52
1998년 가구주 50대×1998년 저소득층	-	-	-0.2533	0.439
1998년 가구주 60대 이상×1998년 저소득층	-	-	0.5862 <sup>*</sup>	0.35
1998년 가구원 수×1998년 저소득층	-	-	0.1045	0.127
가구원 수 변화×1998년 저소득층	-	-	0.1442	0.183
1998년 가구주 교육수준×1998년 저소득층	-	-	0.2406 <sup>**</sup>	0.108
가구주 교육수준 변화×1998년 저소득층	-	-	0.1072	0.314
1998년 가구내 취업자수×1998년 저소득층	-	-	1.3644 <sup>***</sup>	0.279
가구내 취업자수 변화×1998년 저소득층	-	-	0.4457 <sup>**</sup>	0.196
Loglikelihood	-1890.33		-1660.82	
PseudoR2	0.0321		0.1496	

주: † 유의수준 15%, \* 유의수준 10%,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

2) WAVE 2 (2002~2006년)

	모형1A		모형1B	
	계수	표준편차	계수	표준편차
지역자	-0.2249**	0.1090	-0.5243***	0.1230
실업자	-0.6398†	0.4620	-1.7288***	0.5928
비경활	-0.2209†	0.1471	-0.6284***	0.1824
2002년거주지(도=1)	-0.1096	0.0907	-0.0678	0.1054
가구주 성별(남=1)	-0.2480*	0.1456	0.1715	0.1962
2002년가구주30대이하	-0.1974	0.1544	-0.1440	0.1714
2002년가구주50대	-0.2677**	0.1309	-0.3313**	0.1461
2002년가구주60대이상	-0.0744	0.1451	-0.4928***	0.1710
2002년가구원수	0.0252	0.0423	0.0787*	0.0463
가구원수의 변화	-0.2638***	0.0624	-0.3243***	0.0732
2002년가구주 교육수준	0.0560*	0.0350	0.1946***	0.0394
가구주 교육수준의 변화	-0.1208	0.1285	-0.0835	0.1704
2002년가구내 취업자수	-0.0282	0.0621	0.0743	0.0656
가구내 취업자수의 변화	0.6409***	0.0585	0.6746***	0.0663
2002년 가구주 지역자×2002년 저소득층	-	-	0.3232	0.3215
2002년 가구주 실업자×2002년 저소득층	-	-	1.7737**	0.9905
2002년 가구주 비경활×2002년 저소득층	-	-	1.1250***	0.3690
2002년 거주지 (도=1)×2002년 저소득층	-	-	0.1044	0.2348
가구주 성별 (남=1)×2002년 저소득층	-	-	-0.4007	0.3137
2002년 가구주 40대×2002년 저소득층	-	-	-0.0019	0.5579
2002년 가구주 50대×2002년 저소득층	-	-	0.5340	0.4171
2002년 가구주 60대 이상×2002년 저소득층	-	-	0.7474***	0.3058
2002년 가구원 수×2002년 저소득층	-	-	0.0255	0.1188
가구원 수 변화×2002년 저소득층	-	-	0.1526	0.1545
2002년 가구주 교육수준×2002년 저소득층	-	-	0.1938**	0.0904
가구주 교육수준 변화×2002년 저소득층	-	-	0.3105	0.2565
2002년 가구내 취업자수×2002년 저소득층	-	-	0.9913***	0.2159
가구내 취업자수 변화×2002년 저소득층	-	-	0.2019	0.1886
Loglikelihood	-1848.48		-1662.28	
PseudoR2	0.038		0.1349	

주: † 유의수준 15%, \* 유의수준 10%,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

다음의 <표 9>는 모형별 추정 결과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변수의 소득계층 변화에 대한 한계효과를 보여준다. 모형 1B의 경우 Wave I에서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1998년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내 취업자 수의 변화는 계층상승 가능성을 높였다.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경우 1998년 거주지가 시도 지역인 경우 광역시 거주 가구에 비해 계층상승 가능성이 높았다. 1998년 가구원 수 역시 계층상승 가능성을 높였다. 저소득층의 경우 1998년 가구내 취업자수, 경제활동(실업자비경활)은 계층상승 가능성을 높였다. 이는 저소득층 중에서 가구주가 1998년에 실업자, 비경활인 경우 중산층 및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계를 위한 구직을 통해 소득계층의 상승(주로 하류층에서 중산층으로)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가구주 성별로 중산층 및 고소득층 남성의 경우 계층 상승 가능성이 여성보다 높지만, 저소득층 남성의 경우 반

대로 여성보다 계층하락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편모)여성가장의 비중이 높고 저소득층의 남성이자보다 여성가장이 보다 더 가구소득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계층상승의 한계효과는 중산층 및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더 크게 나타났다.

Wave II에서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2002년 가구주 교육수준은 계층상승 가능성을 높였다.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경우 가구원 수와 가구내 취업자 수의 변화 역시 계층상승 가능성을 높였다.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Wave I 과 마찬가지로 2002년 가구내 취업자 수가 계층상승에 다른 변수들보다 훨씬 더 높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Wave I 과 II를 비교해 보면, 공통적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가구내 취업자 수가 다른 변수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과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경우 Wave I 에서 WaveII와는 달리 거주지와 가구주 성별이 계층상승에 영향력을 보였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표 9> 모형 1B 추정 결과에 따른 한계효과

		중산층 및 고소득층			저소득층		
		하락	유지	상승	하락	유지	상승
WAVE I	자영자	-	-	-	0.1181	-0.0492	-0.0689
	실업자	0.1951	-0.1016	-0.0935	-0.1028	-0.0895	0.1923
	비경활	0.0552	-0.0130	-0.0422	-0.0836	-0.0374	0.1209
	1998년거주지(도=1)	-0.0269	0.0028	0.0241	-	-	-
	가구주 성별(남=1)	-0.0251	0.0044	0.0207	0.0092	-0.0012	-0.0080
	1998년가구주60대이상	0.0888	-0.0246	-0.0642	-	-	-
	1998년가구원수	-0.0165	0.0015	0.0149	-	-	-
	1998년가구주 교육수준	-0.0170	0.0016	0.0154	-0.0322	0.0030	0.0291
	1998년가구내 취업자수	-	-	-	-0.1823	0.0171	0.1652
	가구내 취업자수의 변화	-0.0656	0.0062	0.0595	-0.0596	0.0056	0.0540
WAVE II	자영자	0.0737	-0.0170	-0.0567	-	-	-
	실업자	0.3514	-0.2426	-0.1088	-0.1256	-0.2164	0.3420
	비경활	0.0927	-0.0283	-0.0644	-0.1081	-0.0689	0.1770
	2002년 가구주50대	0.0456	-0.0090	-0.0366	-	-	-
	2002년 가구주60대이상	0.0691	-0.0158	-0.0534	-0.0810	-0.0243	0.1053
	2002년 가구원 수	-0.0103	0.0012	0.0091	-	-	-
	가구원 수의 변화	0.0425	-0.0049	-0.0376	-	-	-
	2002년 가구주 교육수준	-0.0255	0.0029	0.0226	-0.0254	0.0029	0.0225
	2002년 가구내 취업자 수	-	-	-	-0.1299	0.0149	0.1150
	가구내 취업자 수의 변화	-0.0884	0.0101	0.0783	-	-	-

모형 2에 대한 추정 결과는 <표 10>에 나타나 있다. 모형 2의 추정 결과는 WAVE I에서는 모형 1에 비하여 추정계수의 절대값이 약간 변화하는 것 이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 대신 WAVE II에서는 다소 상이한 모습이 나타났다. 2002년 경제활동, 가구주 연령(50대), 가원수의 변화, 가구주 교육수준 등은 공통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가구주 성별은 모형 1A, 2002년 가구주 연령(30대이하)는 모형 2A, 가구원 수의 변화는 모형 1B에서만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저소득층 더미를 결합한 경우는 2002년 경제활동(실업자비경활), 가구주 연령(60대이상),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내 취업자 수는 공통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 2002년 경제활동(자영자)는 모형 1B, 가구주 교육수준 변화, 가구주 성별은 모형 2B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10> 순위 로짓모형 추정 결과 II: 모형 2

1) WAVE 1 (1998-2002년)

WAVE I (N=2082)	모형A		모형B	
	계수	표준편차	계수	표준편차
자영자	0.0999	0.1092	-0.035	0.1220
실업자	-0.3043 <sup>†</sup>	0.2091	-1.064 <sup>***</sup>	0.2480
비경활	-0.0972	0.1612	-0.3731 <sup>**</sup>	0.1920
1998년거주지(도=1)	0.0466	0.0897	0.1764 <sup>*</sup>	0.1040
가구주 성별(남=1)	-0.080	0.1495	0.1869	0.1920
1998년가구주30대이하	0.2109 <sup>†</sup>	0.1467	0.1920	0.1640
1998년가구주50대	0.0165	0.1373	-0.0608	0.1550
1998년가구주60대이상	-0.0309	0.1531	-0.5734 <sup>***</sup>	0.1770
1998년가구원수	0.1333 <sup>***</sup>	0.0479	0.1293 <sup>**</sup>	0.0560
가구원수의 변화	0.0606	0.0629	0.0239	0.0720
1998년가구주 교육수준	0.0208	0.0358	0.1319 <sup>***</sup>	0.0400
가구주 교육수준의 변화	0.1555 <sup>†</sup>	0.1013	0.1540	0.1150
1998년가구내 취업자수	-0.0075	0.08237	0.0852	0.0930
가구내 취업자수의 변화	0.4713 <sup>***</sup>	0.0653	0.49692 <sup>***</sup>	0.0750
1998년 가구주 자영자×1998년 저소득층	-	-	-0.7326 <sup>**</sup>	0.3660
1998년 가구주 실업자×1998년 저소득층	-	-	1.0314 <sup>**</sup>	0.5060
1998년 가구주 비경활×1998년 저소득층	-	-	0.6771 <sup>*</sup>	0.3810
1998년 거주지 (도=1)×1998년 저소득층	-	-	-0.2449	0.2490
가구주 성별 (남=1)×1998년 저소득층	-	-	-0.0096	0.3300
1998년 가구주 40대×1998년 저소득층	-	-	-0.0722	0.4750
1998년 가구주 50대×1998년 저소득층	-	-	-0.1666	0.4120
1998년 가구주 60대 이상×1998년 저소득층	-	-	0.5929 <sup>*</sup>	0.3370
1998년 가구원 수×1998년 저소득층	-	-	0.0681	0.1220
가구원 수 변화×1998년 저소득층	-	-	0.1426	0.1680
1998년 가구주 교육수준×1998년 저소득층	-	-	0.2973 <sup>***</sup>	0.1040
가구주 교육수준 변화×1998년 저소득층	-	-	0.1679	0.3030
1998년 가구내 취업자수×1998년 저소득층	-	-	1.3613 <sup>***</sup>	0.2570
가구내 취업자수 변화×1998년 저소득층	-	-	0.3871 <sup>**</sup>	0.1790
Loglikelihood	-2045.24		-1802.28	
PseudoR2	0.0304		0.1455	

2) WAVE 2 (2002-2006년)

WAVEII(N=2082)	모형2A		모형2B	
	계수	표준편차	계수	표준편차
자영자	-0.2170**	0.1085	-0.5084***	0.12208
실업자	-0.6902 <sup>†</sup>	0.4704	-1.7982***	0.5759
비경활	-0.2112 <sup>†</sup>	0.1470	-0.6330***	0.1805
2002년거주지(도=1)	-0.1030	0.0904	-0.0715	0.1047
가구주 성별(남=1)	-0.2493	0.14561	0.1667	0.1929
2002년가구주30대이하	-0.2124 <sup>†</sup>	0.1541	-0.1681	0.1705
2002년가구주50대	-0.2758**	0.1303	-0.3380**	0.1451
2002년가구주60대이상	-0.1108	0.1449	-0.5171***	0.1688
2002년가구원수	0.0251	0.0422	0.0793	0.0459
가구원수의 변화	-0.2558***	0.0620	-0.3019***	0.0720
2002년가구주 교육수준	0.0489 <sup>†</sup>	0.0350	0.1812***	0.0391
가구주 교육수준의 변화	-0.1200	0.1292	-0.0970	0.1678
2002년가구내 취업자수	-0.0410	0.0620	0.0463	0.0649
가구내 취업자수의 변화	0.6437***	0.0581	0.6751***	0.0654
2002년 가구주 자영자×2002년 저소득층	-	-	0.2067	0.3162
2002년 가구주 실업자×2002년 저소득층	-	-	1.9740**	0.9815
2002년 가구주 비경활×2002년 저소득층	-	-	1.1728***	0.3655
2002년 거주지 (도=1)×2002년 저소득층	-	-	0.1105	0.2325
가구주 성별 (남=1)×2002년 저소득층	-	-	-0.4539 <sup>†</sup>	0.3098
2002년 가구주 40대×2002년 저소득층	-	-	-0.0677	0.5521
2002년 가구주 50대×2002년 저소득층	-	-	0.3083	0.4064
2002년 가구주 60대 이상×2002년 저소득층	-	-	0.6482**	0.3036
2002년 가구원 수×2002년 저소득층	-	-	0.0367	0.1155
가구원 수 변화×2002년 저소득층	-	-	0.1367	0.1525
2002년 가구주 교육수준×2002년 저소득층	-	-	0.2063**	0.0889
가구주 교육수준 변화×2002년 저소득층	-	-	0.3982 <sup>†</sup>	0.2610
2002년 가구내 취업자수×2002년 저소득층	-	-	1.0578***	0.2108
가구내 취업자수 변화×2002년 저소득층	-	-	0.1633	0.1814
Loglikelihood	-2025.78		-1834.53	
PseudoR2	0.0353		0.1264	

주: † 유의수준 15%, \* 유의수준 10%,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

<표 11>은 모형 2의 추정 결과에 기초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변수의 소득계층 변화에 대한 한계효과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모형 1의 한계효과와 거의 대동소이한 크기를 보였는데, 다만 모형 1과 달리 Wave II에서 저소득층의 경우 2002년 가구주의 성별이 여성인 경우에 비해 계층상승 확률은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Wave I과 II를 비교해 보면, 공통적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가구내 취업자 수가 다른 변수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나타냈다.<sup>15)</sup>

<표 11> 모형 2B의 추정 결과에 따른 한계효과

		중산층 및 고소득층					저소득층				
		매우하락	하락	유지	상승	매우상승	매우하락	하락	유지	상승	매우상승
I	자영자	-	-	-	-	-	0.0064	0.1140	-0.0506	-0.0686	-0.0013
	실업자	0.0110	0.1777	-0.0968	-0.0902	-0.0017	-0.0041	-0.0930	-0.0752	0.1681	0.0042
	비경활	0.0026	0.0514	-0.0126	-0.0406	-0.0008	-0.0032	-0.0705	-0.0264	0.0979	0.0022
	1998년가주지(도=1)	-0.0011	-0.0225	0.0024	0.0208	0.0004	-	-	-	-	-
	1998년가주주60대이상	0.0042	0.0808	-0.0229	-0.0609	-0.0012	-0.0029	-0.0639	-0.0181	0.0831	0.0018
	1998년가구원수	-0.0008	-0.0164	0.0016	0.0153	0.0003	-	-	-	-	-
	1998년가주주 교육수준	-0.0008	-0.0168	0.0016	0.0157	0.0003	-0.0018	-0.0378	0.0037	0.0353	0.0007
	1998년가구내 취업자수	-	-	-	-	-	-0.0085	-0.1731	0.0167	0.1616	0.0033
	가구내 취업자수의 변화	-0.0031	-0.0632	0.0061	0.0590	0.0012	-0.0024	-0.0492	0.0048	0.0460	0.0009
	II	자영자	0.0052	0.0661	-0.0160	-0.0536	-0.0017	-	-	-	-
실업자		0.0433	0.3252	-0.2576	-0.1079	-0.0030	-0.0080	-0.1231	-0.2614	0.3711	0.0214
비경활		0.0070	0.0865	-0.0285	-0.0630	-0.0019	-0.0072	-0.1041	-0.0758	0.1800	0.0070
가구주 성별(남=1)		-	-	-	-	-	0.0049	0.0617	-0.0199	-0.0454	-0.0014
2002년 가구주50대		0.0033	0.0432	-0.0092	-0.0363	-0.0011	-	-	-	-	-
2002년 가구주60대이상		0.0053	0.0675	-0.0168	-0.0543	-0.0017	-0.0048	-0.0673	-0.0173	0.0864	0.0030
가구원 수의 변화		0.0028	0.0368	-0.0044	-0.0341	-0.0011	-	-	-	-	-
2002년 가구주 교육수준		-0.0017	-0.0221	0.0027	0.0204	0.0006	-0.0019	-0.0252	0.0030	0.0233	0.0007
가구주 교육수준의 변화		-	-	-	-	-	-0.0036	-0.0485	0.0058	0.0449	0.0014
2002년 가구내 취업자 수		-	-	-	-	-	-0.0097	-0.1290	0.0155	0.1193	0.0038
가구내 취업자 수의 변화	-0.0062	-0.0823	0.0099	0.0762	0.0024	-	-	-	-	-	

15) 이처럼 기간별로 계층변화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보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V. 결 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의 1~10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가구특성이 소득계층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구원 수를 반영한 환산소득을 이용하였으며, 소득계층의 변화를 계층하락, 계층유지, 계층상승 등 3가지로 구분한 모형 1과, 매우 하락, 하락, 유지, 상승, 매우 상승 등 5가지로 구분한 모형 2로 구분하였다. 가구의 소득계층 변화에 관한 추정은 순위 로짓모형을 이용하였는데, 분석을 위해 Wave I(1998~2002)과 II(2002~2006)으로 나누었다. 변수로는 가구의 거주지역, 가구주의 성연령 및 경제활동 상태, 가구주 교육수준과 가구내 취업자 수 등을 사용하였다. 가구주 연령은 각 Wave의 최초 년도를 기준으로 더미변수를 만들었으며, 독립변수들의 소득계층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각 Wave의 최초 년도를 기준으로 저소득층과 독립변수들과의 상호작용 효과도 고려하였다.

계층하락, 계층유지, 계층상승 등 3가지로 소득계층의 변화를 구분하고 1998년 저소득층과 설명 변수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모형(1B)의 추정 결과에 근거한 한계효과에 따르면, 1모형 1B의 경우 Wave I에서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1998년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내 취업자 수의 변화는 계층상승 가능성을 높였다.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경우, 거주지가 시도 지역일 때 광역시 거주 가구에 비해 계층상승 가능성이 높았다. 1998년 가구원 수 역시 계층상승 가능성을 높였다. 저소득층의 경우 가구내 취업자수, 경제활동(실업자비경황)은 계층상승 가능성을 높였으나 중산층 및 고소득층과는 달리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계층상승 가능성은 감소하였다.

Wave II에서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2002년 가구주 교육수준은 계층상승 가능성을 높였다.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경우 가구원 수와 가구내 취업자 수의 변화 역시 계층상승 가능성을 높였다.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Wave I 과 마찬가지로 2002년 가구내 취업자 수가 계층상승에 다른 변수들보다 훨씬 더 높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Wave I 과 II를 비교해 보면, 공통적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가구내 취업자 수가 다른 변수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과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경우 Wave I에서 WaveII와는 달리 거주지와 가구주 성별이 계층상승에 영향력을 보였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소득계층의 변화를 매우 하락, 하락, 유지, 상승, 매우 상승 등 5가지로 구분한 추정 결과도 모형 1B와 유사한 추정 결과를 보였다.

소득 계층상승 확률을 높이는 변수는 소득계층이나 Wave에 상관없이 교육수준과 취업자 수를 들 수 있는데, 교육수준에 대해서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계층이 상승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특히 저소득계층 가구의 자녀들이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시정하고 확대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가구내 취업자 수가 많을수록 계층상승 확률이 높아지므로 저소득계층의 취업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일자리를 포함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시에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직업교육 실시와 이후 일자리 알선 기능을 내실화 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한계 및 보완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5년 단위의 분석기간을 3년 정도로 단축시켜 시기별 효과의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과 시기와 상관없이 계층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분

할 경우 보다 엄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해당 연도에 가구주의 소득계층 상태만을 고려하였으나, 보다 다양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즉, 1 ~ 10차년도 전기간동안 소득계층의 하락, 유지, 상승을 살펴보고 어떠한 경우 소득의 계층의 변동이 심한지, 아니면 소득 계층의 변동이 거의 없는지 구분하고, 특히 만성적으로 하류층에 머물고 있는 계층고 차상위층(하류층 진입과 탈출이 빈번한 계층) 등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은 향후 과제로 남기고 보완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재호, “일과 빈곤”, 『제4회 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2003.
- 김재호·김승택, “빈곤의 원인에 대한 실증분석-패널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접근”, 한국노동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2001.
- 강석훈·현진권, “소득분배과약을 위한 통계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원 소득분배토론회, 2001.
- 김미곤. 「최저생계비 계층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제13호, 1997. 10, pp.75-84.
- 김유선, “비정규직 결정요인”, 『제4회 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3.
- 김진욱. 「한국가계의 동등화 소비 단위」, 『공공경제』 제5권 제1호, 2000a. 5, pp. 251-283.  
. 『계층간 갈등상태에서 최적소득세』. 서울: 집문당, 2000b.  
. 「한국의 소득불평등 변화요인 분석 -가구주 특성을 중심으로-」. 『사회경제평론』 제19호 2002. 10, pp. 267-293.
- 김진욱·박창원. 「소득계층의 실태와 특성에 관한 분석」, 『공공경제』 제6권 제2호, 2001. 11, pp. 57-77.
- 김진욱·정의철. 「소득계층의 변화요인 분석 -가구특성을 중심으로-」. 『제4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pp.1-17,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3.3.  
\_\_\_\_\_. 「가구특성에 따른 소득계층 변화」. 『노동경제논집』 제27권 2호 pp.91-115 한국 노동경제학회, 2004.8.
- 김형기, 「생산적 복지를 위한 근로자 조세지원제도 연구」, 『생산적 복지를 위한 노동정책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0.
- 남준우,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규모 및 소득변화의 추이」, 『노동정책연구』 제7권 제4호, 한국 노동연구원, 2007.
- 류상영·강석훈. 『중산층의 변화실태와 정책방향』.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9.
- 류정순·이상우, “최근 4년(1999-2002)동안 한국의 도시빈곤규모 변화”, 『사회경제평론』 제 19호, 한국사회경제학회, 2002.
- 박순일·최현수·강성호. 『빈부격차 확대요인의 분석과 빈곤·서민생활 대책』. 서울: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0.
- 박찬용·김진욱. 「경제위기 전후 가구주 특성별 빈곤수준 변화계측」. 『사회보장연구』 제16권 제1호, 2000. 6, pp.1-23 .
- 박찬용·김진욱·김태완.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수준 및 소득불평등 변화와 정책방향』. 서울: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1999.
- 박성준, “금융위기 이후의 소득불균등에 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제23권제2호, 한국노동경제학

회, 2000.

보건복지부. 『2000-200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02.

석상훈, 「빈곤의 지속 - 상태의존성 검증-」, 『사회보장연구』 제23권 3호, 한국사회보장학회.

성명재, 「외환위기 이후의 소득분배 및 세부담 분석」, 『노동정책연구』 창간호, 한국 노동연구원, 2001.

유경준, 「임금소득 불평등도의 변화요인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1998.

\_\_\_\_\_, 『IMF이후 분배구조 및 빈곤의 변화와 외국의 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원, 1999.

\_\_\_\_\_(편저),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0.

\_\_\_\_\_, 「외환위기 이후 소득변화의 추이 및 원인분석」, 『소득분배토론회 자료집』, 한국개발연구원, 2001.

\_\_\_\_\_,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KDI 재정·사회정책동향』 2008년 상반기, 한국개발연구원, 2008.

유경준·김대일,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갭변화와 재분배정책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2.

유태균, 「미국 소득세액공제제도(EITC)의 효과 및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생산적 복지를 위한 노동정책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0.

이정우. 『소득분배론』. 서울: 비봉출판사, 1991.

이정우·이성림, 「경제위기와 빈부격차: 1997년 위기 전후의 소득분배와 빈곤」, 『국제경제연구』 제7권 제2호, 2001.

이정우·황성현, 「한국의 분배문제 : 현황과 문제점과 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원, 1998.

장현준. 『한국도시부문의 표준생계비』.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86.

정건화. 「외환위기 이후 도시가구의 생활상태 변화-도시가계조사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IMF 이후 한국의 빈곤』, 서울: 나남출판, 2000, pp.109-143.

정진호·황덕순·이병희·최강식.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1.

조용수·김기승, 「2007, 세대별 빈곤진출입 결정요인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3권 3호, 한국사회보장학회.

최마울, 「1997년 경제위기 이후의 소득 불평등과 빈곤」, 경북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최마울·김성환, 「경제위기와 소득불평등 : 1997년 이후를 중심으로」, 『제4회 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2003.

최희갑, 「외환위기와 소득분배의 양극화」, 『국제경제연구』, 제8권제2호, 한국국제경제학회, 2002.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http://www.kli.re.kr/klip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저생계비계측조사』. 1989, 1994.

황덕순, 「생산적 복지를 위한 노동정책의 기본방향과 과제」, 『생산적 복지를 위한 노동정책연구』, 한국 노동연구원, 2000.

- \_\_\_\_\_,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에 대한 동태분석”, 노동연구원 노동시장콜로키엄 발표문, 2001.
- 현진권·임병인. 「우리나라 소득분배 실증연구의 한계」. 『응용경제』 제6권 제1호, 2004. 6, pp.49-67.
- 현진권·윤건영.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평가와 개혁과제」. 『조세개혁의 방향모색-한국과 미국』. 개원 7주년 기념 심포지엄,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1999, pp.75-93.
- Bigard, A. , Y. Guilloin, and C. Lucifora, 1998, “Earnings mobility: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Italy and Franc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44, no.4.
- Blackburn, M. and D. E. Bloom, 1985, “What is happening to the Middle Class?”, *American Demographics*.
- Cossa, R, J. Heckman, and L. Lochner, 1999, “Wage Subsidies and Skill Formation : A Study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Manuscript, University of Chicago, May.
- Dickert-Conlin, S., and J. Scholz, 1995,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Transfer Programs: A Study do Labor Market and Program Participation”, *Tax Policy and the Economy*, J.M Poterba(ed), NBER and the MIT Press
- Duncan, G, J, 1984, *Years of Poverty years of Plenty*, Mich, A, A: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 Esteban Joan-Maria and Debraj Ray, 1991, “On the measurement of polarization”, Institute for Economic Development Discussion Paper 18.
- \_\_\_\_\_, 1994, “On the measurement of polarization”, *Econometrics*, vol. 62, no.4, pp.819-851.
- Fields, Gary S., and Efe A. Ok, 1999, “The Measurement of Income Mobility: An Introduction to the Literature”, *Handbook of Inequality Measurement*, 1999.
- Foster, James E. and Wolfson, Michael C., 1992, “Polarization and Decline of the Middle Class: Canada and the U.S.” Mimeo, Vanderbilt University.
- Flrster, M. F. *Measurement of Low Incomes and Poverty in a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Comparisons*.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 14, OECD/GD(94)10, Paris, 1994: OECD.
- Greene, William. *Econometric Analysis*. 3rd ed.,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97.
- Kim, Young-Sung, 2001, “Income Inequality and Mobility in Korea 1988-1997: Nonparametric approach”, mimeo.
- Liebman, J., 1997, “The Impact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on the Incentives and Income Distribution”, *Tax Policy and the Economy*.
- OECD, 1996, “Income 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 *Social Policy Studies*, no.19.
- OECD, 2000, 『OECD 한국경제 보고서』, OECD.
- Rainwater, L. and T. Smeeding, 1995, “Income distribution in Europe Countries” in

- Atkinson(eds), *Income and the Welfare State*, Cambridge University.
- Rowntree, B. S. *Poverty: A Study of Town Life*. London, 1901.
- Townsend, P.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A Survey of Household Resources and Standard of Living*.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9.

[부 록]

<부표 1> 소득항목별 지니계수(횡단면)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가구소득	0.402	0.413	0.406	0.414	0.423	0.428	0.434	0.426	0.436	0.437
환산소득	0.385	0.393	0.385	0.392	0.398	0.404	0.411	0.399	0.412	0.408
근로소득	0.334	0.334	0.326	0.347	0.339	0.342	0.351	0.354	0.351	0.353
금융소득	0.638	0.624	0.758	0.632	0.649	0.682	0.704	0.674	0.696	0.687
부동산소득	0.572	0.703	0.62	0.664	0.763	0.707	0.758	0.711	0.727	0.757
이전소득	0.634	0.551	0.526	0.59	0.656	0.601	0.621	0.62	0.632	0.615
사회보험소득	0.469	0.624	0.662	0.664	0.719	0.759	0.711	0.667	0.683	0.684
기타소득	0.743	0.725	0.743	0.681	0.657	0.769	0.756	0.744	0.809	0.726

주 : 각 항목별 소득에서 소득이 '0'인 경우 제외하고 계산한 것임.

<부표 2> 소득항목별 지니계수(패널)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가구소득	0.395	0.400	0.409	0.412	0.425	0.418	0.429	0.426	0.425	0.433
환산소득	0.376	0.380	0.391	0.391	0.399	0.394	0.407	0.402	0.405	0.407
근로소득	0.339	0.333	0.329	0.346	0.337	0.339	0.353	0.357	0.353	0.360
금융소득	0.662	0.598	0.800	0.624	0.657	0.685	0.720	0.611	0.653	0.682
부동산소득	0.569	0.663	0.566	0.659	0.775	0.715	0.757	0.735	0.739	0.729
이전소득	0.590	0.550	0.501	0.776	0.644	0.605	0.631	0.628	0.638	0.630
사회보험소득	0.457	0.650	0.711	0.656	0.743	0.691	0.688	0.653	0.664	0.679
기타소득	0.731	0.707	0.735	0.702	0.646	0.688	0.772	0.750	0.737	0.701

주 : 각 항목별 소득에서 소득이 '0'인 경우 제외하고 계산한 것임.

<부표 3> 중산층 규모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상류층		24.20 <sup>1)</sup>	24.03	24.39	25.54	24.83	25.37	26.87	27.92	26.54	26.03
		22.83 <sup>2)</sup>	24.79	24.26	25.91	24.37	25.70	25.26	27.17	26.19	26.09
중산층	전체	57.60	56.62	57.33	54.67	55.83	54.01	52.39	51.42	53.50	54.00
		59.55	56.81	58.25	54.91	56.72	54.43	53.83	52.31	53.60	52.70
	중간층	46.82	45.96	44.72	41.76	44.05	44.19	41.54	40.52	42.36	42.78
		47.84	42.90	45.28	42.25	44.75	44.61	43.15	40.95	43.19	42.22
	중하층	10.78	10.66	12.61	12.91	11.78	9.82	10.85	10.90	11.14	11.22
		11.71	13.91	12.97	12.66	11.97	9.82	10.68	11.36	10.41	10.48
하류층		18.21	19.35	18.27	19.79	19.33	20.62	20.74	20.67	19.96	19.96
		17.62	18.40	17.49	19.18	18.91	19.86	20.90	20.53	20.21	21.21

주 : 1)은 가구소득을, 2)는 환산소득을 기준으로 한 수치임.